

창업 성장세 ‘주춤’...“지역 전략산업 연계 생태계 강화를”

■ 중기부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10년간 창업 성장률 광주 1.91%·1.48% 뒷걸음질 수도권 쏠림에 기술창업 미흡...“인재·자본 선순환”

수도권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창업·벤처 생태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가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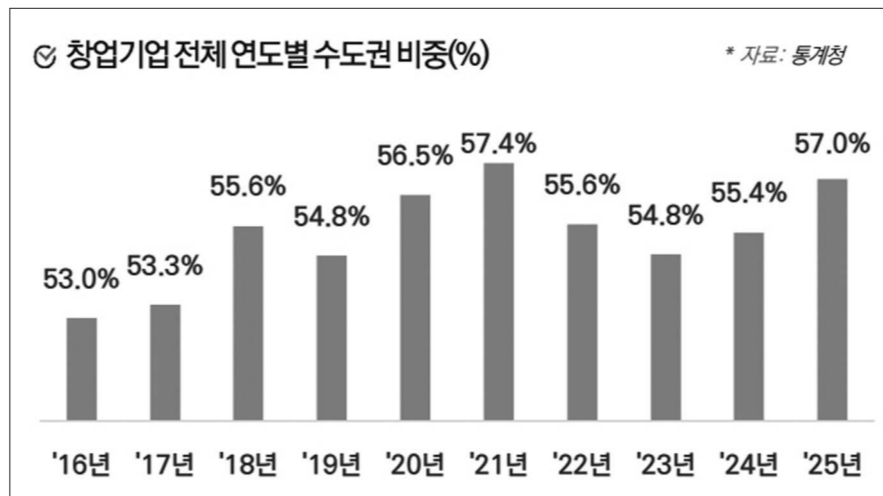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를 주제로 창업에서 성장에 이어 투자, 글로벌로 이어지는 전 주기 생태계의 실행 전략

과 협력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정은에 박사는 지역 창업 생태계 현황 자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지역 내 투자 선순환 구조와 인재 정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창업기업 수는 2020년 148만5000개에서 올해 113만6000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기반 창업은 22만개 안팎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지표로는 광주·전남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의 전체 창업기업 연평균 성장률은 -1.91%로 집계됐으며, 기술기반 창업 성장률은 0.63%에 그쳤다. 전남 역시 전체 창업기업 성장률은 -1.48%를 기록했고 기술기반 창업 성장률은 0.0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전체 1.08%·기술기반 3.44%), 인천(0.82%·3.97%), 충남(0.49%·2.17%)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광주·전남 모두 전체 창업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기술기반 창업 증가 폭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의 벤처 기반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748개, 전남은 290개로 집계됐는데 서울(1만1070개)과 경기(1만2538개)는 물론 대전(1537개), 충남(1310개)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큰 수준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주요 과제로 수도권 투자 집중, 신기술 분야 인재 부족, 지역 정착 기반 미흡, 초기 투자 인프라 한계 등이 제시됐다.

특히 광주·전남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침체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AI·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박사는 “지역 창업은 단순한 기업 육성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인구 구조와 연결된 문제”라며 “지역 내 인재와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수출 비중 감소세도 함께 언급됐다.

중소기업 수출과 기업 성장 기반이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방 기업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역 창업 생태계의 개방성과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구조적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투자기관, 기업 간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창업 이후 성장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한성수 중기부 장관은 “일자리와 주는 방식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때이며, 그 전환의 중심에 창업이 있다”며 “분야별 챌린지, 팀스(TIPS)·유니콘 브릿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7일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출하식을 개최했다.

전남농협, 경기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바나나·햇양파·햇감자 출하식...안전한 먹거리 공급 확대

전남농협이 경기도 학교급식 시장에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본격화하며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나섰다.

농협 전남본부는 7일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심포농협 조합장, 신광섭 남평농협 조합장, 친환경농업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학교로 공급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한 운송을

지원했다. 이번 출하는 농협 전남본부가 경기도 학교급식 관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제철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올해 새롭게 공급되는 전남산 친환경 바나나다. 신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바나나는 장거리 유통을 위한 화학 처리 없이 재배·유통돼 안전성이 높고, 충분한 후숙 과정을 거쳐 품미 또한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5월 수확기를 맞은 햇양파와 햇감자 공급도 본격화된다.

농협 전남본부는 호남권친환경센터의 엄격한 잔류농약 검사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남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지역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호남권 유일의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 거점으로, 지난 2017년 개장 이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연간 19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고부터 출고까지 저

운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학교급식 맞춤형 안전 농산물을 원스톱 공급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과 공급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남 농업인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친환경 농산물이 경기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식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나나와 같은 신규 고부가가치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한 제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농업인 실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5월 전통주에 담양 하심당 ‘석탄주’

증가비율 계속...은은한 과일향·부드러운 단맛

담양 하심당(대표 송영중)이 생산하는 ‘석탄주’가 전남도 5월 이달의 전통주로 선정됐다.

석탄주는 ‘아까워서 삼키기 아쉬운 술’이라는 뜻으로, 향과 단맛이 뛰어나 입안에 머금으면 쉽게 넘기기 어렵다는 데서 유래했다. 다양한 교문현에 ‘석탄향’, ‘성탄향’ 등의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주다.

담양 하심당의 석탄주는 대대로 전승된 종가집 비법서를 바탕으로 빚어낸 약주다. 전통 제조기술에 송영중 대표가 10여년간 연구하고 다듬은 제조법을 더해 일정한 맛과 깊은 품미를 구현했다.

과일향이 느껴지지만 실제 과일이나 첨



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참쌀과 누룩, 물, 세 가지 재료만 사용해 21일간 발효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단맛을 완성했다.

일교를 도수는 11도로 성인 소비자가 부담 없이 즐기 좋은 전통주로 평가된다.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5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석탄주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 전통주다”며 “앞으로도 고유한 스토리와 색깔을 가진 지역 전통주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전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지난 6일 나주시사 대회의실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 건설현장 안전회의 및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 건설현장 정기 안전회의

전문가 초청 중대재해 대응·품질 역량 강화교육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지사장 류화열)는 지난 6일 나주시사 대회의실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 건설현장 안전회의 및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등 건설공사 참여 주체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신 건설 현장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대책 논의, 재해 발생 시 긴급 대피 및 보고 체계 점검, 위기 대비 취약 시설 위험요인 분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 특별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최신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국가건설기준에 기반한 품질관리 실무 교육을 병행해 참석자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류화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이번 회의와 교육이 건설현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장 관계자 모두가 안전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현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마트사업호남지사 나주시 ‘농촌 일손돕기’

농협경제지주마트사업호남지사는 7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박종근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7명은 전남 나주시지역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에서 포도나무 신초(생장과 결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지) 유인 및 고정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농협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종근 지사장은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전남산 물김 생산 위판액 1조원 시대 열었다

올해 누적생산 48만3000여t·위판액 1조10억 기록

전남산 물김 위판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며 K-김을 선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산 물김 누적 생산량은 48만3525t, 누적 위판액 1조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53만191t)보다 8.8% 감소했지만 위판액은 지난해(8253억원)보다 21.3% 증가한 규모다.

전남지역 김 생산시설은 2026년산 기준 94만7000척으로, 전국 생산시설 121만8000척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흥·진도·완도·해남·신안 등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물김 생산과 위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4월 말 기준 주요 시·군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고흥 15만2720t, 진도 11만221t, 완도 8만3336t, 해남 7만1652t, 신안 3만8190t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전남 물김 생산의 핵심 산지로, 양식 기반과 위판 체계를 바탕으로 전남지역 김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안정적 물김 생산을 위해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 인증 무표 지원, 어장 정비, 적정 시설량 관리 등 생산 기반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병해·황백화 등 생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현장 예찰과 어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기 종료 후 시설물 철거와 어장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다음 어기 생산 기반을 조기에 회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량 종자 확보, 병해 예방 강화,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등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업과장은 “전남 물김 위판액 1조원 달성은 도내 주요 산지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 노력과 전남 김의 품질 경쟁력이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 김 산업을 계속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